

【어원 탐구 · 고대어】

‘昭聖代’에 대한 한 생각

金完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고려가요 『처용가』의 첫머리에 기묘하게 쓰인 한자 하나가 끼어 있는데, 특별한 주목도 받지 못한 채로 내려오는 것 같다.

新羅聖代 昭聖代

天下太平 羅侯德

處容아바

필자가 그렇게 지목하는 것은 ‘昭聖代’의 ‘昭(밝을 소)자다. 양주동 선생의 『여요전주』에서 ‘羅侯德’의 ‘羅侯’부터만 주석의 대상으로 하며 그 앞의 표현들은 도외시하였기 때문에 자연 별반의 논의 없이 내려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昭聖代’를 평범한 표현으로 보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분들의 이해 내용을 억측할 길이 없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자료들만 살펴도 두 개의 다른 태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나는 ‘昭聖代’의 ‘昭’를 ‘聖代’에 걸리는 수식어로 이해하여 ‘新羅 聖代 昭

은 聖代라 해석하는 일인데, 가령 최철 교수에게서 볼 수 있는 해석이다. (『고려 국어 가요의 해석』, 1996:159.) 이 해석에는 차자표기 시대에 ‘불근’을 의도한 표기가 불완전하게 ‘昭’ 한 글자로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원래는 ‘昭隱’과 같이 잘 갖추어져 있던 표기가 훼손을 입어 ‘昭’만 남았다고 생각해야 하는 부담이 없진다.

다른 하나의 생각은 분명히 ‘昭’자의 존재를 인식은 하면서도 해석에는 그昭를 반영하지 않는 방식인데, 박병채 선생의 제자들의 손으로 이룩된 <고친 판> 『고려가요의 어석연구』(1994:126 및 167)에서의 ‘신라의 성스러운 시대여’가 그것이다. 정확히는 ‘昭聖代’가 무시된 듯한 표현이다. 필자의 추측이지만 ‘昭聖代’란 같은 의미의 ‘昭代’와 ‘聖代’를 중복시켜 강조한 것이기에 의미상으로는 그 앞에 있는 단순한 ‘聖代’와 같아진다는 논리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사전들에서 ‘昭代’나 ‘聖代’는 ‘昭世’나 ‘聖世’와 함께 나아가서는 ‘聖時’ 같은 말까지와 함께 동의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사전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군왕(君王)의 치세(治世)를 칭송하여 이르는 데 사용되는 말들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昭代’와 ‘聖代’를 복합하여 ‘昭聖代’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아마도 예가 없는 일이겠고 자연스럽지도 않다는 데 부담이 있다.

위에 든 두 견해는 ‘昭’의 뜻을 ‘밝은’으로 밝히느냐 묻어 두느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지현영 선생의 영향이 있음을 감지하기 어렵지 않게 되어 있다. 우선 최철 교수의 경우, 원문이나 해석에서 ‘聖’(성인 성) 대신에 ‘盛’(창성 성)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지현영 선생의 선택을 따른 것의 징표가 된다. 처용가의 본문이 『악학궤범』과 『악장가사』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지만, 그 첫줄에서 ‘聖’자를 써서 ‘新羅聖代 昭聖代’라 한 것은 『악학궤범』, ‘新羅盛代 昭盛代’라 한 것은 『악장가사』인데, 양주동 선생이 앞의 것을 취하고 뒤의 것을 버린 반면에 지현영 선생은 뒤의 것을 선호하여 앞의 것을 배척하였던 것이다.(본문의 표기)

‘盛’자의 선호는 단순한 글자 선택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현영

선생의 문면 해석에 연결된다. ‘新羅盛代’에 대한 그 분의 주석을 살펴보면 그러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新羅盛代 … “武烈王”代에서 “惠恭王”代까지의 時代를 “新羅盛代”, “新羅中代”라고 이르는 것이나 이곳에서는 “新羅時代”라는 뜻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이다.

최철 교수가 본문의 표기에서 ‘盛’자를 쓰고, 해석에서 ‘新羅盛代’, 밝은 ‘盛代’라고 한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현영 선생을 따르고 있다고 하겠으나, ‘신라가 살기 좋은 盛代였고, …’ 운운의 부연만 가지고는 지 선생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인가까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고친관> 『고려가요의 어석 연구』는 ‘盛’자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신라의 성스러운 시대여’에서 ‘시대’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지현영 선생의 사고의 수용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盛代’는 ‘聖代’에 비하여 의미의 여유가 있다. 특정 군왕의 치세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국운이 융성한 시대’의 뜻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 ‘盛代’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盛代’의 의미를 한결음 더 넓혀 ‘신라시대’ 일반적으로까지 확대하려 한 지현영 선생의 심중에는 다른 개념이 작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처용이 개운포에 나타나는 것은 신라 49대 헌강왕(憲康王) 때의 일로 되어 있는데, 그의 시대를 ‘聖代’나 ‘盛代’라 하기에는 주저되는 바 없지 않았을 것이다. 875년에 시작되는 그의 치세 11년을 포함한 60년은 신라사의 마지막 급경사에 해당한다.(56대 경순왕에서 신라가 끝을 고하는 것이 935년)

50대 정강왕 : 헌강왕의 아우

51대 진성여왕 : 헌강왕의 누이동생

52대 효공왕 : 헌강왕의 서자

53대 신덕왕 : 박씨, 헌강왕의 사위

54대 경명왕 : 박씨, 신덕왕 태자

55대 경애왕 : 박씨, 경명왕의 아우

56대 경순왕 : 김씨, 헌강왕의 외손

그렇다고 '盛代'의 내용을 신라시대 일반으로 확장하며 헌강왕과의 만남을 피하는 것 이외의 다른 길은 없는 것일까. 또 원초적으로 악장가사의 '盛代'가 아닌 악학궤범의 '聖代'에 의지한 사고의 길이 정말 막혀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악학궤범의 표기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라고 '聖代'를 배격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또 '昭聖代'를 '昭聖代' 그대로의 자연스런 단어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즉 '밝은 聖代' 또는 '昭代'와 '聖代'의 복합으로 보지 않고도 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런 것을 필자는 생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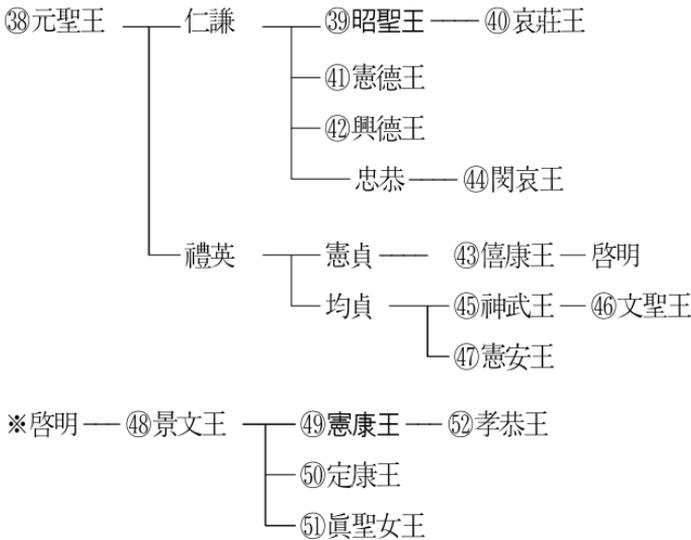
2.

'昭聖代'의 '昭聖'의 후보로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신라 39대의 왕인 '소성왕'인데, 한자로는 昭聖王 혹은 昭成이라 쓰기도 하였다 한다. 할아버지 원성왕(元聖王)의 뒤를 이어 799년에 즉위하였으나, 재위 겨우 1년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다.(아버지인 태자 인겸은 791년에 사망) 그런 그에게 '昭聖'의 시호는 역설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기에 더욱 이런 이름을 바쳤는지도 모른다. 이 이름의 역설성은 왕위 쟁탈을 위한 골육 간의 상잔이 되풀이된 6대에 걸친 난세로 더욱 부각된다.

소성왕의 아들이 애장왕(哀莊王)인데, 그 이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숙부 언승에게 살해당했다. 이 언승이 41대 헌덕왕(憲德王)인데 그 자신도 응주도독 헌창(憲昌)의 반란을 가까스로 진압하고 있다. 헌창은 문성왕과의 왕위 경쟁에서 밀려났던 주원(周元)의 아들이다.

43대 희강왕(僖康王)의 등극도 친족 간의 유혈을 거쳐서 이루어졌지만, 그 자신도 한때의 지지자 김명(=閔哀王)의 쿠데타로 스스로 목을 매고 말았다.

민애왕은 즉위 다음 해인 839년, 신무왕(神武王)의 혁명군에 살해된다. 신무왕 우징(祐徵)은 희강왕과의 왕위 다툼에서 패사한 균정(均貞)의 아들이니, 원성왕의 또하나의 증손이다.



‘新羅 聖代 昭聖代’에서의 ‘聖代’는 문자 그대로의 보통명사 ‘성대’인 반면, 그것을 받아 증강된 ‘昭聖代’는 고유명사 昭聖王의 ‘昭聖’으로 보는 것이다. 수사법상으로는 ‘가시리 가시리잇고’와 같은 증가법(augmentative)에 의존하면서 일종의 말놀이 또는 언어유희(paronomasia)를 짜넣고 있는 것이다. 昭聖王의 치세가 성대이고 아니고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聖’자가 들어 있으면 그만인 것이다.

언어유희의 작용 양식은 이런 종류의 것이다.

옛날 옛날 옛적에

간날 간날 갖적에

‘옛날 옛날’이 어떻게 ‘간날 간날’을 불러오는 것인가. 지금의 표기대로의 ‘옛날’이 ‘간날’을 불러오기는 어렵다. ‘간날’이란 표현은 흔히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옛날’을 발음대로의 ‘엔날’로 바꾸어 놓으면 동사 ‘예다’(<<너다)의 관형사형이 되고 거기서 비슷한 의미의 ‘간날’을 도출하기는 어렵지 않고 방정식의 오른쪽에서는 ‘옛적’의 시옷에 이끌려 ‘가’에 시옷을 받친 ‘갖적’이라는 희한한 어형을 생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처용이 나타난 것이 소성왕 때가 아니고 현강왕 때의 일이라는 10대 60년의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향가로서의 처용가를 말하는 자리에서라면 그러한 이동은 생각하기 어렵다.(일부의 역사학자 또는 민속학자의 모종의 논의는 여기 고려에 넣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향가가 아니라 고려가요의 처용가를 말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정은 매우 다르다.

향가에서의 처용가는 여기 짝막한 ‘삼입가요’가 되어 덤으로 끼어 있는 형상이다. 장장 45행에 걸치는 고려가요로서의 처용가는 특정 시기를 떠나 작용하는 무가로서의 특징으로 평가받고 있다.(서대석, 「고려 처용가의 무가적 검토」, 1992) 어려운 한문 구절들도 분방하게 구사하고 있는 처용가의 작자는 신라의 역사에서 ‘소성왕’의 이름을 끌어와 표현의 한 장식을 삼았겠거니와, 고려시대의 독자 또는 청중에게 있어서는 무대가 현강왕대가 아닌 소성왕대로 바뀌어 보인다 하더라도 거부감 같은 것이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몇백 년 전의 일, 신라의 왕계에 소장할 수도 없었겠거니와, 듣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소성왕의 존재를 순진하게 받아들이며, 그의 치세가 정말 성대인양, ‘성대’와 결부시켜 음미하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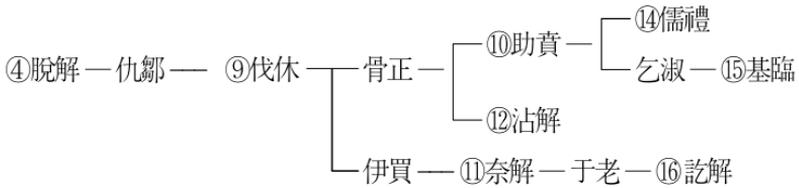
기왕 ‘昭聖’을 고유명사로 생각해 본 길이니, 역사상의 고유명사 한두 가지에 대하여 생각해 오던 것을 덧붙여 볼까 한다.

하나는 고구려의 연개소문(淵蓋蘇文)의 아우의 이름 연정토(淵淨土)에 관한 것이다. ‘淵’은 성, 기휘하여 ‘泉’으로도 쓰이는데, 일본측의 기록에 연개소문을 伊梨柯須彌라 하였으니 ‘淵, 泉’이 혼동될 것임을 알려 주거니와, 그의 이름 蓋素文도 혹 蓋金으로 표기되기도 하는 의미 미상의 고구려말이었을 것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런데 그의 아우의 이름이 불교 용어인 순한자어 ‘淨土’이었을까 하는 것을 필자는 의심하는 것이다. 아마 그에게도 3음절 또는 4음절 되는 蓋素文과 같은 이름이 있었을 터인데, 蓋金처럼 두 음절로 줄여 적을 때에 ‘淨土’라는 표기가 등장한 것이 아닐까 한다. 억측컨대 범어로 淨土(서방정토)를 뜻하는 *sukhavāti*와 음상이 비슷한 이름을 그렇게 의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것이다. 물론 이런 생각이 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단어가 고구려에 차용되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多婆那國이라는 나라 또는 지방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삼국사기』 탈해왕 조에, ‘脫解는 본디 多婆那國 소생인데 그 나라는 왜국 동북 일천리에 있다.’라고 한 기사에 나오는 지명이 多婆那國이다. 흔히 ‘다파나국’으로 읽고 있으나, (왕의 이름 婆娑의 婆도 그러하지만) 불교 용어 ‘娑婆’의 발음 ‘사바’를 고려하면 이 나라의 이름도 ‘다바나’ 정도였을 것 같다.

필자는 방향과 거리를 분명히 밝혀 ‘東北一千里’라고 한 것을 중요시한다. 제주도 같은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방향을 정반대로 착각한 처사다. 당시의 왜국은 지금의 규슈(九州) 북부, 쓰쿠시(筑紫)를 기준으로 동북을 찾으면 지금의 혼슈(本州)의 동해 연안, 지금 거리로 600 내지 700km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지금 행정 구역으로 교토후(京都府)의 북반(北半)에 해당하는 지역, 옛 이름으로 단바(丹波 *tamba*)라 하던 곳에 이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중세 일본어의 b, d, g는 음성상으로 비음 m, n, ŋ 등을 앞에 동반하고 있었으니, ‘丹波’는 ‘多婆那’의 ‘多婆’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那是 아마도 ‘땅’의 뜻을 가진 명사 또는 접사) 신라 王姓 ‘朴, 昔, 金’의 하나인 ‘昔’씨는 동해 너머로 진출했던 신라 세력을 대표하는 것인가. 관심 있는 분들이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



신라의 왕통 56대 992년 가운데 昔氏가 차지하는 것은 탈해에서 시작하여 8王에 그친다. 4세기 중엽 이후 昔氏는 왕권 참여에서 배제되고, 박씨와 김씨만의 세상이 되고 만다. 흑 바다 건너에 있었던 석씨의 배후 세력의 붕괴, 왜국의 혼슈로의 세력 확장 같은 요소를 생각해 볼 만하다. 열전(列傳)에 나오는 유일한 석씨인 昔于老의 기사가 왜인과의 옥신각신 속에서 참사한 것을 알리는 것은 이런 사실의 상징적 기술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